



고롱고롱 웹사이트 반응형 리뉴얼

🕒 작성일시	@2025년 9월 22일 오전 9:30
☰ 유형	리뉴얼 모바일 반응형 웹사이트
🛠 툴	비주얼스튜디오 피그마
🔗 URL	https://i-wisheeee.github.io/gorong_gorong/

Overview

고롱고롱브랜드 웹사이트 리뉴얼 프로젝트는 브랜드 고유의 따뜻하고 아늑한 감성을 시각적으로 강화하고, 사용자 중심의 탐색/구매 경험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롱고롱’이라는 브랜드가 전달하는 **고양이의 평온한 삶, 집사와의 감성적 연결**이라는 가치를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전반을 반응형으로 재설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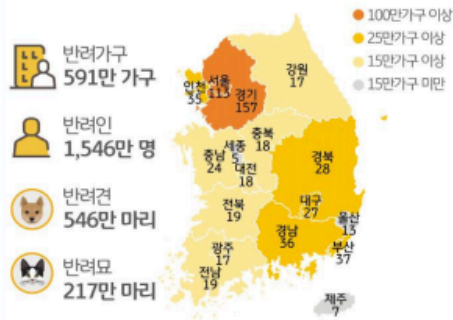
기존 사이트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인 **브랜드 감성 부족, 탐색 동선의 복잡성, 모바일 UX의 미흡함** 등을 해결하며,

제품 중심의 단순한 구조에서 **브랜드 경험 중심의 UI/UX**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 📄 2025년 반려동물보고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국내 591만 가구, 1,546만 명이 반려동물 양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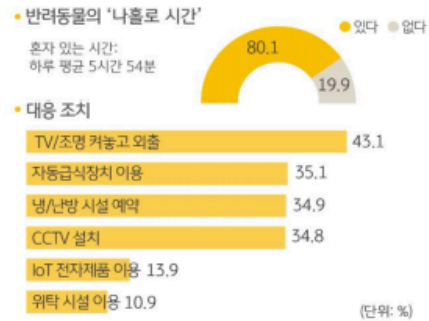
반려견 1위는 '몰티즈', 반려묘는 '코리안 숏헤어'



반려동물의 건강·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자와의 충분한 시간 및 교감'



반려동물 80.1%는 '나홀로 집에' 경험, 남겨진 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54분



반려동물 월 양육비는 평균 19만 4천 원, 2023년 대비 식비가 6.8%p 증가



최근 2년간 반려동물 치료비로 2023년의 두배인 146만 3천 원 지출



- 작년 2024년 기준 대한민국 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1,546만 명으로 추정
- 전체 인구의 **약 29.9%**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
-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8.6%**까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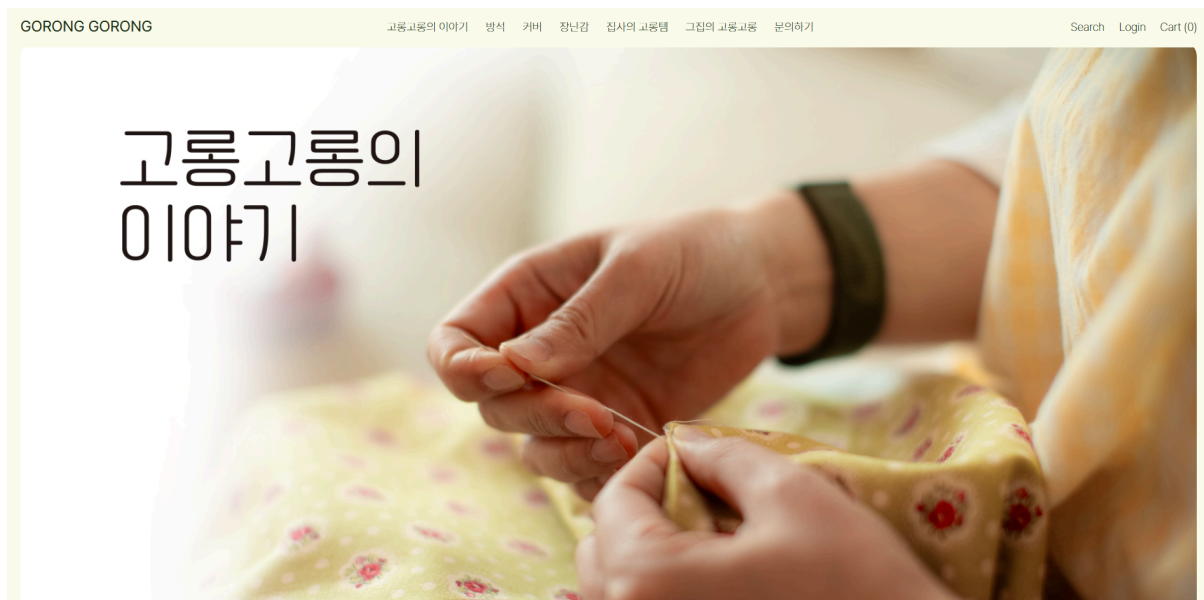
- 🐶반려견 수: 약 499만 마리
- 🐱반려묘 수: 약 277만 마리

📈 반려묘 양육 인구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 중이며, 특히 도시 1~2인 가구 중심으로 고양이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반려동물이 단순한 '펫'이 아닌 '인생의 동반자'로 자리잡은 시대 고롱고롱브랜드는 **고양이의 편안한 침을 위한 공간**을

감성적으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단순한 기능성 제품을 넘어서, "내 가족에게 주고 싶은 부드러운 쿠션"처럼,

더 좋은 소재, 더 아늑한 디자인을 고민하며 제품을 만듭니다.



1. 고롱고롱이란?

재봉 경험 28년의 집사가 자신의 고양이를 위해 시작한 브랜드로,

고양이용품(집, 방석, 쿠션 등)을 디자인 및 판매하는 자사 민간 온라인 쇼핑몰 브랜드입니다.

'고롱고롱 고양이집'이라고도 불리며, 부드러운 소재, **고양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디자인**, 마감 퀄리티 등이 강조되고 있으며,

집사의 손길과 관점이 많이 반영돼 있다는 점에서 일반 고양이 용품과 차별성이 있습니다.

고양이와 집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며 인스타그램과 자사 웹사이트(goronggorong.co.kr)에서 제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주요제품 : 고양이 방석, 고양이 쿠션, 고양이 장난감, 집사용소품

(2)특징 -100%국산 원자재, 안전한 소재사용

-길 위의 많은 고양이, 강아지들을 위해 씬터에 수익금 일부 기부활동하는 선한 영향력행사하는 브랜드

- (3)마케팅채널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 (4)사용자 : 주 고객층 20-30대 고양이 집사



2. 고롱고롱 브랜드 리뉴얼 컨셉정리

핵심 개념	설명	추가 정보	예시
브랜드 정체성	귀엽고 친근하며 감각적인 일상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일상 속 작은 즐거움’으로 설정	귀여운 캐릭터, 일상용품, 아기자기한 디자인
타깃층	20~40대 (고양이를 가족처럼 여기는 이들)	취향 소비, SNS 친화적, 소소한 힐링 요소 선호	인스타그램 감성 사진
주요 가치	친근함, 유머, 소소한 행복, 감성, 정성,온전함,따뜻함	고객이 일상에서 브랜드를 쉽게 경험하고 소유할 수 있는 느낌	고양이 모티브 굿즈, 귀여운 패키징, 포근한 컬러톤
톤 & 매너	부드럽고 따뜻한 감성 + 귀여움, 유머	톡톡 튀는 네이밍과 이미지, 부담 없는 소통	‘고롱고롱’ 의성어 느낌, 웹/패키지 디자인에서 곡선형 UI, 파스텔톤, 따뜻한 색감
상품/서비스 특징	일상용품, 소품,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친근하고 귀여운 아이템	작지만 소장가치 있는 디자인 중심, 특별하지않아도 실용성있는 디자인	방석, 캣잇&마따따비장난감, 상품이름이 정신 체리바니등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결합된 귀여운 요소가 많음
브랜드 경험	보는 순간 힐링, 반려동물의 사용	자사 쇼핑몰, 쿠팡 입점	반려동물과의 제품 언박싱 경험을 토대로 SNS 인증샷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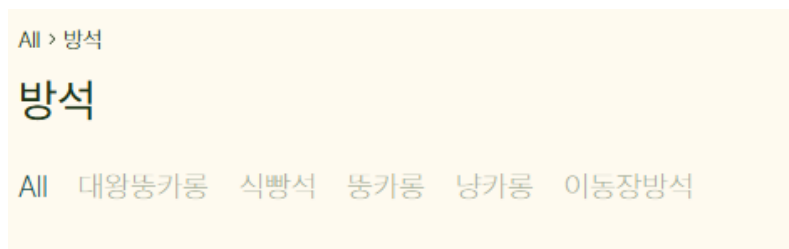
핵심 개념	설명	추가 정보	예시
	후기를 통한 SNS 공유 유도,		

3. 고롱고롱의 리뉴얼 컨셉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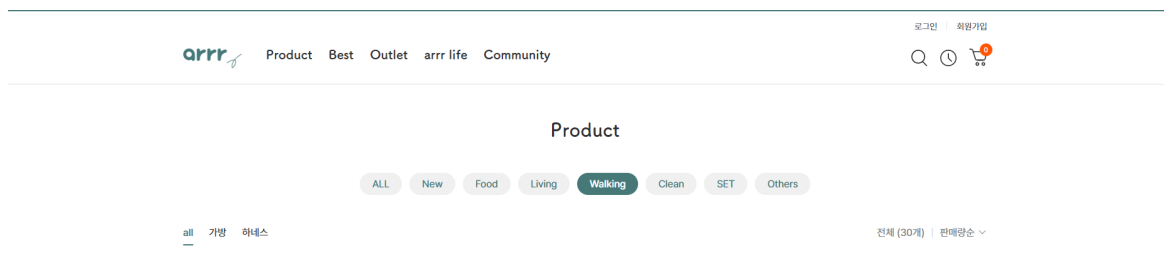
1. '일상 속 귀여움'을 핵심으로 한 감성 브랜드
2. SNS 친화적, 사용자중심으로 MZ세대와 소통
3. 제품, 패키지, 웹사이트 디자인 모두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톤** 유지
4. 브랜드 네이밍 자체가 **의성어 + 친근함**을 전달 → '고롱고롱'

4. 기존 고롱고롱사이트의 문제점 및 보완할점(사용자니즈)

- ▼ 1. 2차메뉴로 진입했을때 **1차메뉴전체 확인**이 어려워 접근방식이 비효율적이다.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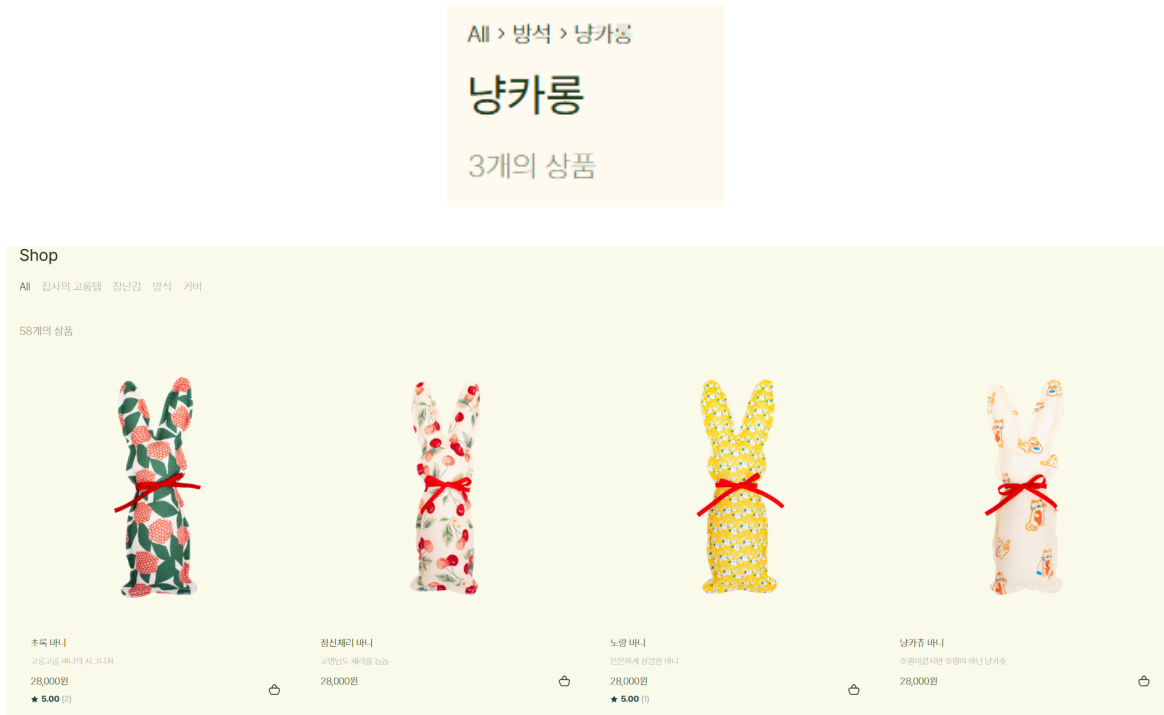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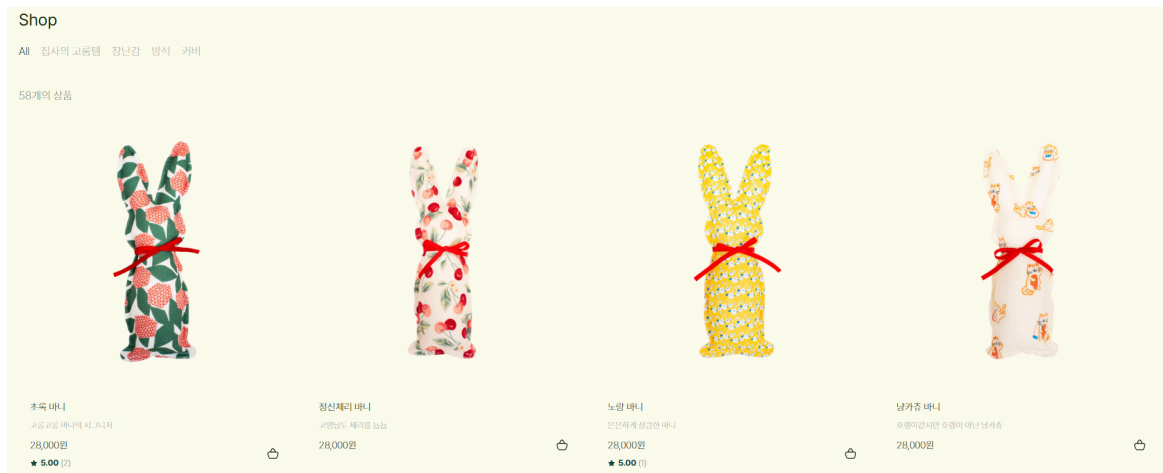
- ⇒ 1차메뉴탭을 전체 오픈탭으로 바꾸고 2차메뉴탭으로 진입할수있도록 변경한다. (보완할점)



예) 경쟁사arrr

- ▼ 2. 내비게이션 구조가 직관적이지 않아, 사용자가 이용 시 혼란을 느끼고 불편함을 유발한다. **(문제점)**
- ⇒ 초기접속의 'ALL'메뉴는 1차메뉴의 해당하는 메뉴의 전체 메뉴들을 나타내지만 2차메뉴들을 둘러본뒤 'ALL'을 클릭하면
- '냥카롱'메뉴에서 'ALL'을 눌렀을때와 '식빵석'메뉴에서 'ALL'을 눌렀을때 똑같이 전체 상품의 메뉴로 돌아가는 내비게이션의 구조로 되어있어
- 불필요한 느낌의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 기존의 'All' 탭을 삭제하고, 분산되어 있던 1차 쇼핑 메뉴들을 주요 카테고리로 통합한 뒤, 각 카테고리 내에서 2차 메뉴로 세분화하여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메뉴 구조를 간소화하고, 사용자들이 원하는 상품군을 더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UI/UX 개선을 도모한다. **(보완할점)**



예) 경쟁사 pethroom

▼ 3. 리뷰 메뉴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거나 탐색하기에 친절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 **(문제점)**

예) 상품별리뷰, 추천순, 사진이 리뷰창에비해 크지않음

리뷰

별점 높은순 | 별점 낮은순 | 최신순



꽃송이 똥가름

베스트 리뷰

★★★★★ mkt***

첫째 고양이 자라 갈이 참대에서 자는데, 밤 밑에서 자거든요.
밤 밑에 방석을 두니, 바로 자기 자리만큼 열더라구요???
혹시라도 자다가 밑에 치일지도 없고, 더 안전한 자리에서 낮이나 밤이나 다 잘 합니다-
거실에 나온뎌 방석 들고 나와야 해요 😊...

다보기

🕒 댓글 1

2025-05-14



솔리드 냥카동

음산-엘로

베스트 리뷰

★★★★★ mkt***

산 밑에 갈아다는 것인데...

2025-0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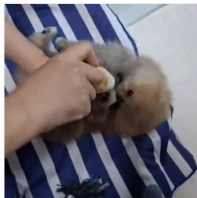


⇒ 베스트리뷰는 사용자들이 보기 편하고 찾아보고싶게 사진이 큰 구조로 모아서 재배치 시킨다. (보완할 점)

BEST REVIE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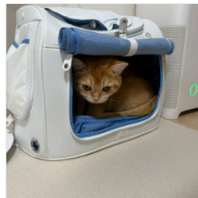
매월 5명에게 5만원 상당의 패스름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베스트 리뷰 전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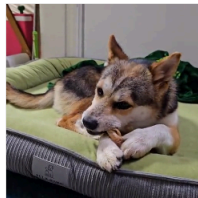
★★★★★
🌿🌿🌿🌿🌿 안녕하세요! 최근 3개...
소*

포우 케어 세트 (포우 케어 에...
평점 5.0 리뷰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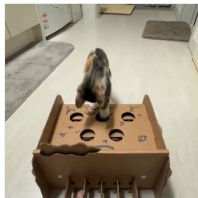
★★★★★
컬러 알람하고 이쁘고, 사이즈 5kg인 저희...
오미*

세이프 커스텀 백팩
평점 4.9 리뷰 56



★★★★★
우리집 멍머가 너무 맛나게 먹어요~ 고기만...
김미*

허니 도넛츄 (차킨/오리)
평점 4.8 리뷰 365



★★★★★
조립이 힘든게... 제품 자체 조립난이도가 높...
조우*

펍업 토이
평점 4.4 리뷰 1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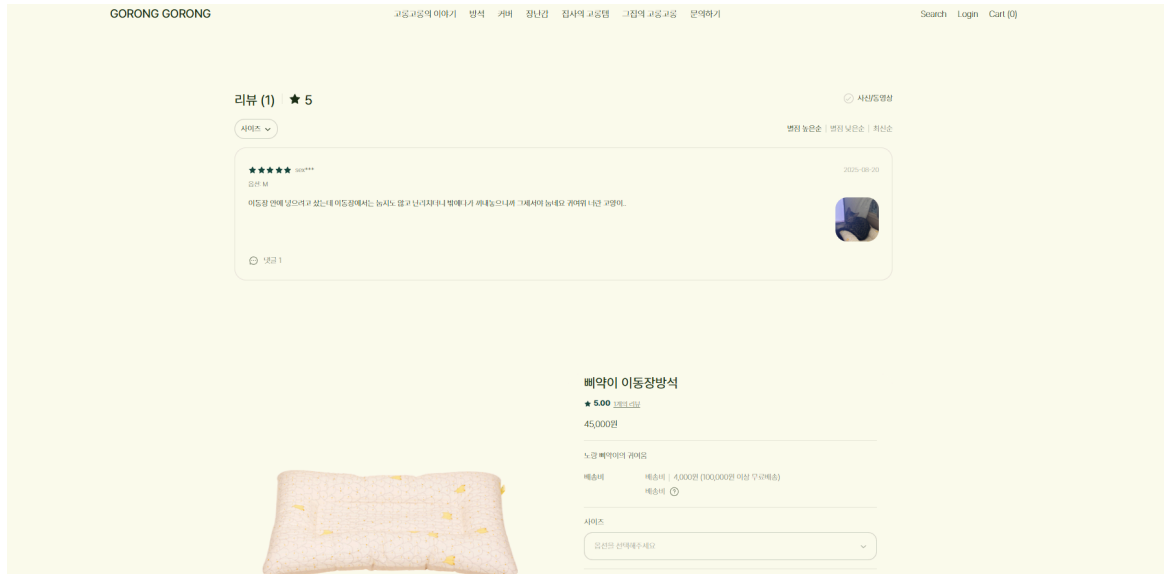


★★★★★
차 카시트로 사용하기 전에 집에서 먼저 사...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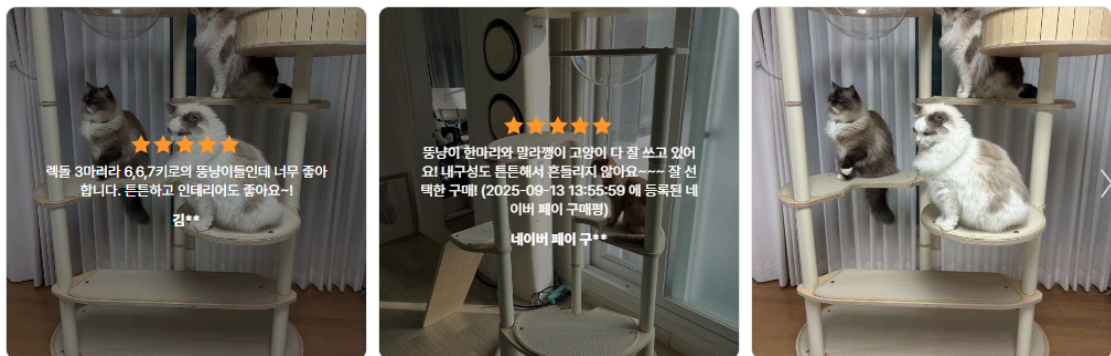
멀티월드 카-하우스
평점 4.5 리뷰 32

예) 경쟁사 pethroom

▼ 4. 쇼핑몰 특성상 사용자들은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후기를 함께 확인하는데, 해당 홈페이지는 후기가 맨 위에 포함되어 있어 구조가 특이하게 배치되어 있어 비교하기 번거로운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



⇒ 한눈에 보기 편하게 이미지가 호버되면 리뷰가 보이게 하거나 차별화되게 하는 효과를 주는 등 상세 페이지 내에 리뷰를 추가한다. **(보완할점)**



예) 경쟁사 가또블랑코

▼ 5.시각적 대비가 부족한 메뉴들의 **가독성과 식별성을 개선한다.** + 단조로운 로고또한 심심하지않게 귀여운요소를 추가해 본다.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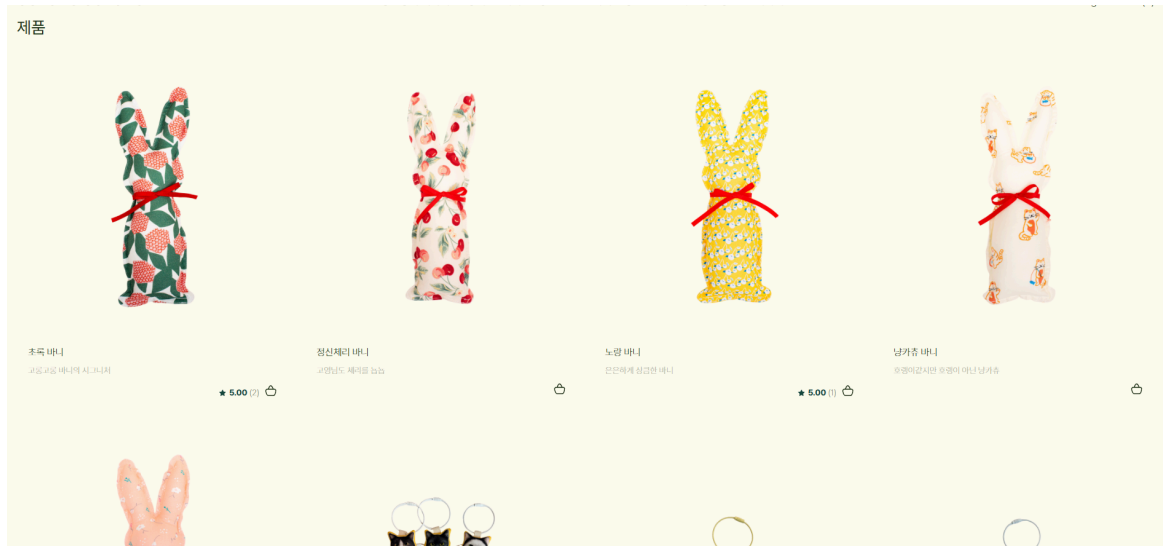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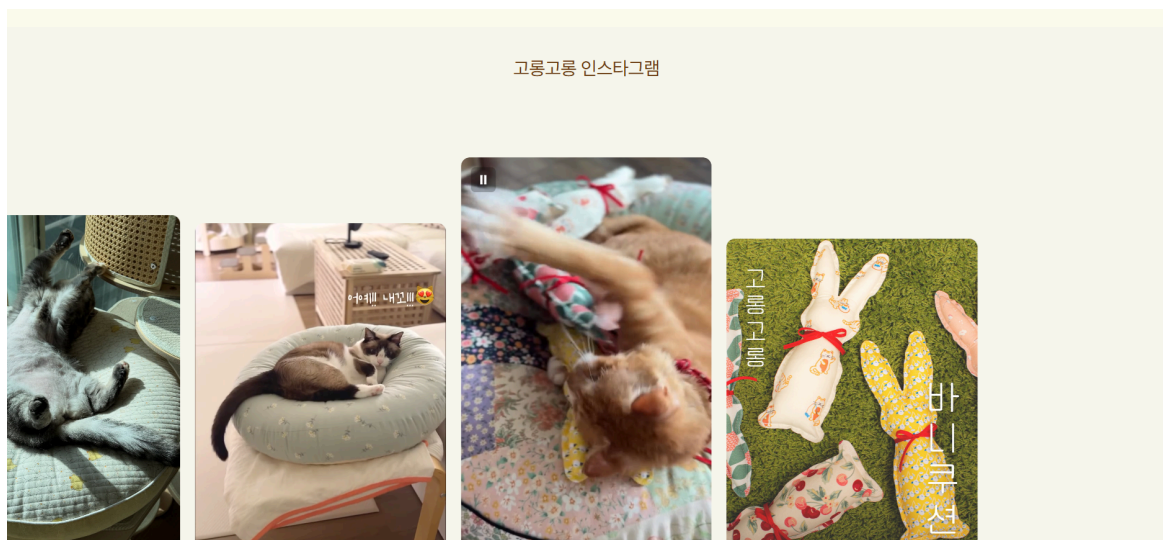
arrr Product Best Outlet arrr life Community

예) 경쟁사 arrr **(보완할점)**

▼ 6. 메뉴 구분을 위한 레이아웃 배치 구조가 시각적 완성도 및 심미성 측면에서 미흡하다. (문제점)

⇒ 구조가 과도하게 넓게 설정되어 제목이 잘리는 현상이 발생하며, 텍스트가 길고 정돈되지 않아 전반적인 가독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메인 페이지에는 정보 우선순위가 낮은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어 핵심 메시지 전달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메뉴 제목과 콘텐츠 구조의 조화를 고려해 레이아웃을 재설계한다.

반응형 그리드 또는 유연한 텍스트 대응 구조를 적용하여 제목 잘림과 가독성 문제를 해소하고, 메인 페이지는 핵심 정보 중심으로 간결하게 구성해 사용자 집중도를 높인다. (보완할점)

▼ 7. 시각적으로 섬세하지못한 구성을 좀더 감성있는 섬세한 UI로 재탄생 시킨다. (문제점)

고롱고롱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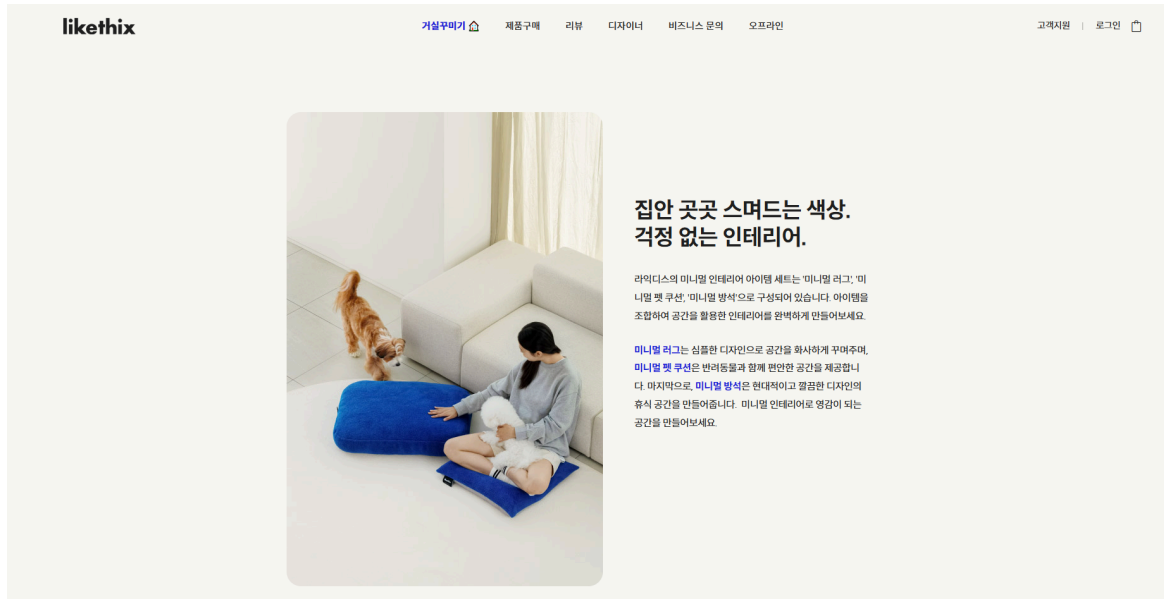
아릴 때부터 옷을 아주 좋아했던 저는
옷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꿈이었거든요.
그러던 시에 스무살 무렵,
고양이를 반려하게 되어
취미삼아 내 고양이를 위한 방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움이 중요시 않았어요.
다리가 불편한 고양이도,
동그렇게 말고 싶어하는 고양이도
그지 안락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싶었죠.
대충 만들고 기뻐하는 성격이 못 되어
테스트를 하고 또 하고, 더 좋은 것을 만들려 애쓰다보니
그 방식을 사고 싶다는 요청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고롱고롱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하여 16년간의 의상 일을 접고
고양이를 위한 방식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게 되었네요.
좋아하는 분야, 잘 다루는 기술로 고양이의 것을 만든다니
그야말로 덕업 일치.
행복하게 방식 위에 앉아있는 고양이와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집사님들의 기쁨,
그것이 고롱고롱을 이어가는 동력이 되고 있어요.
작은 한 뼘 한 뼘에
세상 모든 고양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듬뿍 담아볼게요.
ps.
내 품의 아이만큼이나
감 위치 많은 고양이, 감이지에게도 맘이 쓰이기에
아려 침터에 지속적으로 기부와 나눔을 이야기고 있어요.
더 많은 곳에 손길을 건넬 수 있길 바라며,
오늘도 열심히 재봉틀을 굴러보겠습니다.

고롱고롱

이웃역권 개인창조자리명칭 사업자명/학인 11 문적
상호 : 고롱고롱 | 대표 : 강혜미 | 개인창조자리명칭 : 강혜미
전화 : 010-4024-1690 | 이메일 : gorongcor@gmail.com | 주소 : 경기도영주시 제도읍 내석동영모3가길 45-504호 2410996
사업자등록번호 : 134-36-00675 | 등산판매업신고번호 : 2019-제도-주공-0292 | 호스팅 제공자 : 주식회사 착스탑
● **tosspayments** 안전거래(եսսսր) 서비스 개발점

© 2025 GORONG. ALL RIGHTS RESERVED





⇒ 시각적으로 단조로운 텍스트 배치를 조화롭게 재구성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한다.
(보완할점)

예) 가구쇼핑몰 likethix

▼ 8.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싶은 사항

기존의 브랜드에서 길위의 동물들과 유기동물에게 후원하는 브랜드인 만큼 메인페이지에 **실종반려동물들을 찾는 홍보메세지창 배너**를 추가한다.

예시)

강아지를 찾습니다

※ 결정적 제보 시 사례금 500만원 ※



호랑이 / 믹스견 / 2살 / 수컷 / 11KG

일 시 : 2025년 8월 3일 일요일

위 치 : 부산 수영구 남천동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인근**

특 징 : **풍긋한 귀, 말린 꼬리, 마른 몸매, 긴 다리**
발 흰색 털, 아무것도 착용 X, 중성화&내장칩 O

※발견 시 잡거나 부르지 말고 위치/사진 촬영 후 제보※

010-2695-0306



찾으면 천단지 직접 수거하겠습니다. 폐지 마주세요.

고양이를 찾습니다



노벨이 / 2살 / 코숏 / 남 /

신논현역 3번 출구 근처 2025/08/23

- 회색+흰색 털의 5~6kg정도 되는 코리안숏헤어입니다.
- 8/23(토)오전 7:20 노벨테크빌딩 휴먼실 쪽에서 사라졌습니다.
- 사진과 동일한 핑크색 방울 목걸이(인식표)를 차고 있으며 실종 당시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중성화 수술로 왼쪽 귀 커팅되어있습니다.

※사례해드려겠습니다. 간절히 기다리고있습니다 ※천단지는 폐지마세요 찾으면 직접 수거하겠습니다

 **010-7728-5248**

5. 고롱고롱의 디자인 목표및 방향성

💡 브랜드 미션 (Mission)

[고롱고롱 : 흔히 골골송이라 불리기도 하며, 대체적으로 **고양이가 만족감, 행복감을 느낄 때 내는 소리**]

"하루의 끝에 고롱고롱, 행복히 마음을 쉬게 하다."

반려동물과 집사들의 일상 속, 작지만 확실한 위로를 전하는 브랜드.

🌈 브랜드 비전 (Vision)

반려동물의 편안함과 휴식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과 아기자기한 감성 기반으로 한 소소하고 따뜻한 브랜드로 성장,

'편안함이 머무는 공간'을 만드는 **고양이의 쉼을 디자인**하는 브랜드가 된다.

❤️ 핵심 가치 (Core Values)

- 따뜻함 (Warmth)
- 진정성 (Sincerity)
- 감성 (Emotional touch)
- 휴식 (Rest)
- 고양이 중심 (Cat-first Thinking)
- 귀여움 (cute)

👤 타겟 고객 (Target Audience)

- 20~40대 감성 집사
- 인테리어와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
- 고양이의 라이프스타일과 습성에 관심이 많은 층

🎯 브랜드 포지셔닝

"고롱고롱브랜드는 옷을 좋아했던 대표가 반려 고양이를 위해 방식을 만들며 시작된 고양이들을 위한 감성적이고 편안한 심터를 제공하는 **힐링 중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입니다. 일상 속 작지만 확실한 위로를 제품과 콘텐츠로 전합니다."

🎨 톤앤매너 (Tone & Manner)

- **말투:** 다정하고 귀여운 말투 (예: "고롱이는 오늘 어디서 쉴까요?")
- **시각적 요소:** 따뜻한톤,미니멀하면서도 감성적인 컬러(베이지, 파스텔톤 등), 손그림 느낌, 부드러운 곡선
- **브랜드 감성:** 포근함, 귀여움, 아늑함, 평화로움, 세심함
- 고양이는 시각적으로 파란색,노란색,녹색을 주로 인식하기 때문에

주요 메인 색상층을 **#FAE38C**으로 설정하고 서브색상을 **#1b3114**으로설정한다.

💬 슬로건

"고롱고롱, 마음이 쉬어가는 시간"

"온세상 고양이가 고롱고롱하겠네"

6. 경쟁사 분석

브랜드이름	브랜드 정체성 및 철학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주요 고객층	특징	장점및 단점
아르르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일상을 풍요	간식, 리빙, 뷰티, 패션	연령대 다양	라이프스타일 중심의 다양한 제품	장점: 다양한 제품군으로 폭넓은 고객층 확보 단점:

STYLE GUIDE

LO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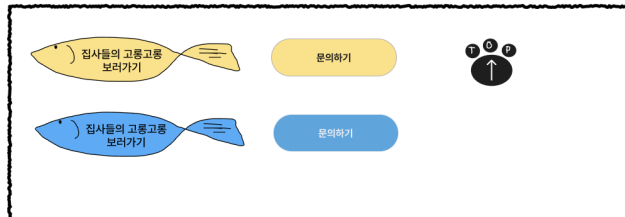
IC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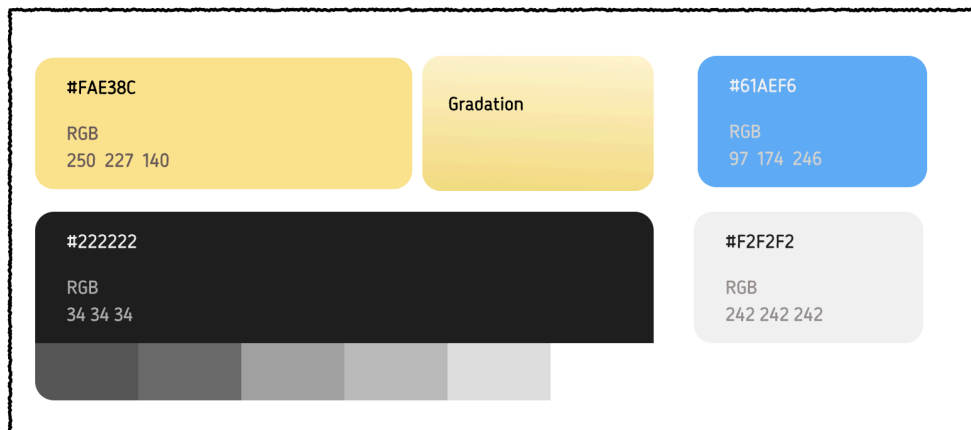
Typography



BUTTON



COLOR



🎯 제작 목적

- 고양이의 평온한 심, 집사와의 감성 연결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웹사이트 전반에 녹여내기 위한 리뉴얼
- 기존의 브랜드 감성 부족, 사용자 불편 UX, 모바일 최적화 미흡 등의 문제점을 보완
- 단순 상품 판매 중심에서 브랜드 경험 중심의 UI/UX로 전환

👤 주 타겟

- 20~40대 고양이 집사층

- 감성 소비를 중시하고 **인테리어와 조화를 중요시하는 고객**
- **SNS 공유 문화에 익숙한 고객층**

제작 순서

1. 기획: 브랜드 감성 분석 → 사용자 불편 요소 수집 → 경쟁사 분석
2. 컨셉정리: 브랜드 톤앤매너, 핵심 가치 정리 / 컬러 및 비주얼 방향성 설정(컬러 (#FAE38C, #1b3114), 폰트, 톤앤매너 가이드 구축)
3. 정보구조 재정비: 메뉴 구조 개선 / 탐색 동선 정리 / 핵심 콘텐츠 우선순위 설정
4. 디자인 시스템 수립: 레퍼런스 수집 및 가이드 정비
5. 시안제작: 피그마로 반응형웹사이트 헤더-메인-푸터까지 와이어프레임-디자인시안 PC/태블릿/모바일 버전으로 제작
6. 사용자 테스트 및 피드백: 프로토타입 테스트 → 문제점 발견 및 수정 반영
7. 반응형 구현: PC부터 모바일까지 VScode로 반응형 구현
8. 스타일 가이드 정리

문제점 또는 아쉬운 점

1. 과도한 시각 효과로 정보 전달력 저하

- **문제점:** 시각적 요소에 치중한 나머지,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 전달이 부족하게 느껴졌음.
- **원인:** 디자인에서 감성적인 분위기 연출에만 집중하고, 정보 구조/사용자 흐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음.
- **개선방안:**
 - **시각적 완성도와 정보 구조 균형** 고려
 - **콘텐츠 우선순위에 따라 레이아웃**을 설계하고, 시각효과는 부가 요소로 제한
 - 핵심 정보는 사용자 스크롤 1~2회 내에서 도달 가능하게 설계

2. 스크립트 기반 스크롤 효과 적용 시 잦은 오류 발생

- **문제점:** JavaScript를 활용한 스크롤 인터랙션 효과 적용 시 코드 오류가 잦아 코딩 시간이 지연됨.
- **원인:**
 - 플러그인 의존성 문제
 - 커스텀 스크롤 효과의 정확한 이해 부족
 - 디버깅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됨
- **개선방안:**

- jQuery 기반 플러그인보다 **바닐라 JS** 또는 검증된 라이브러리(Framer Motion, GSAP 등)로 대체 고려
- **기능 정의서** 또는 **플로우차트**를 통해 적용 방식 사전 명확화
- 오류 발생 시 **Chrome DevTools**를 적극 활용한 단계별 디버깅 습관화

3. 피그마 베리언트 설정 미비로 작업 비효율 발생

- **문제점:** 초기 와이어프레임 설계 시 **컴포넌트/베리언트 설정 없이** 진행되어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야 했음.
- **원인:**
 - 디자인 시스템 없이 개별 요소 중심으로 작업
 - 컴포넌트 사용법에 대한 사전 계획 부족
- **개선방안:**
 - 피그마 작업 전 디자인 시스템(색상, 버튼, 폰트, 여백 등)을 먼저 구축
 - 공통 UI 요소는 반드시 **컴포넌트화 + 베리언트 활용**
 - 프로젝트 시작 시, UI Kit / Style Guide부터 구성

4. 피그마 프로토타입 링크 오류 및 미리보기 시 모션 오작동

- **문제점:** 프로토타입 연결 링크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아, 미리보기 시 의도한 모션과 다르게 재생됨.
- **원인:**
 - 프로토타입 연결 시 **Frame**과 **Component** 구분 미흡
 - 페이지 전환 트리거 설정 오류 (예: Auto Animate 설정 미흡)
- **개선방안:**
 - 프로토타입 연결 시 **Interaction** 플로우를 명확하게 확인
 - 각 연결의 시작점/종료점이 올바른 프레임인지 체크
 - 모션 효과는 **단순한 디졸브 / 스마트 애니메이트** 기반으로 구성하고, 무리한 트랜지션 지양

총평 및 다음 프로젝트를 위한 제안

이번 리뉴얼 프로젝트는 감성적이고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결과물을 도출했지만, **기획/설계 단계의 체계적 준비 부족**으로 인해 작업 효율성과 개발 안정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시 중점 개선할 점

- 스크립트 및 프로토타입 구현은 **단계별 테스트**를 병행하며 적용
- Figma에서
- 코딩작업시 스크립트를 이용한 스크롤효과를 적용하는 데에 있어 오류가 많아져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 피그마 와이어프레임 작업 시 베리언트를 미리 설정하지않아 이중으로 두번 작업하게되었다.(업무적 효율이 떨어짐)
- 피그마에서 프로토타입을 연결할 때 링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미리보기 시 모션이 의도와 다르게 재생되어 수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개선 방향 제안

피그마

- 모든 프레임과 흐름은 반드시 명명하고 순서화하여 혼란 방지하기
 - 한프레임씩 정리후 순차적으로 작업을 쌓아가기
 - 이름 없는 `Frame 1`, `Group 2` 와 같은 기본 명명은 작업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양하기
 - 전체 플로우의 흐름도 논리적 순서대로 정리하여, 협업자나 나중에 보더라도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하도록 만들기
 - 한 프레임씩 정리하고 확인한 후, 그 다음 프레임을 순차적으로 작업에 레이어처럼 쌓아가는 방식으로 구성하기
- 디자인 시스템 → 컴포넌트 설계 → 베리언츠 생성의 3단계 체계 수립
 - 규칙적으로 사용해 손에 익히고, 작업 시간을 최소화하며 효율을 극대화한다
 - 일관된 디자인 유지와 빠른 수정 반영이 가능해져 전체 프로젝트 품질을 높인다
 - 협업 시에도 공통 기준이 되어 커뮤니케이션 오류를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 네이밍 컨벤션 정하기
 - 알아보기쉽게 미리 규칙 정해두기 (소문자만 쓰기 / 언더바 사용하기 / 접두어 붙이기 등)
 - 예) `txt_`, `btn_`, `icon_` 등 역할별 접두어 붙이기

비주얼스튜디오코드

- 반응형미디어쿼리 세분화하여 작업하기
 - 미디어쿼리를 헤더부터 세분화하여 기준을 잡아 줄여나가면서 레이아웃이 틀어지는 부분을 바로 수정한다.
- 코드 레이아웃 및 구조 표준화하기
 - html구조 설계시 시맨틱마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css 클래스명 등 네이밍 컨벤션을 정해 혼란을 줄이고 작업시간을 줄인다.
- 자주 미리보기 하며 바로바로 수정하기
 - 한꺼번에 작업 후 수정하는 것보다, 작은 단위로 점검하며 진행한다.
- 브라우저 도구 적극활용하기
 - 개발자 도구(Dev Tools)를 활용하여 css 구조를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수정사항을 테스트한다.

다른 대안 또는 시도해보고 싶은 방향

- GSAP트리거 애니메이션을 적극 활용한 좀 더 풍성한 시각적 효과를 내는 홈페이지 제작을 해보고싶다.
- 일러스트 툴을 익혀 상세페이지 배너와 포스터 등을 직접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넣고싶다.
- 피그마를 좀 더 깊게 공부하여 다양한 프로토타입효과를 구현하여 시뮬레이션화시키고 싶다.

이번 작업에서 배운 점, 느낀 점

💡 배운 점

- 감성적인 브랜드도 '기능성'과 '사용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체감했다.
→ 아무리 따뜻한 디자인 감성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해매지 않도록 직관적인 구조 설계가 우선이라는 것을 배웠다.
- 디자인 시스템, 컴포넌트화, 반응형 설계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 일관된 디자인을 유지하고 수정/반복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선 구조적인 설계가 필수였다.
- 브랜드 정체성과 사용자 흐름을 동시에 녹이는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 예쁜 디자인을 넘어, 고롱고롱 브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따뜻한 감성'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을 배웠다.
- 하고 싶은 것과 사용자에게 필요한 것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 너무 많은 욕심을 담아 보기 좋은 디자인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사용자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불편한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체감했다.
→ 결국, 감성뿐 아니라 '논리'가 함께 설계된 디자인이 진정한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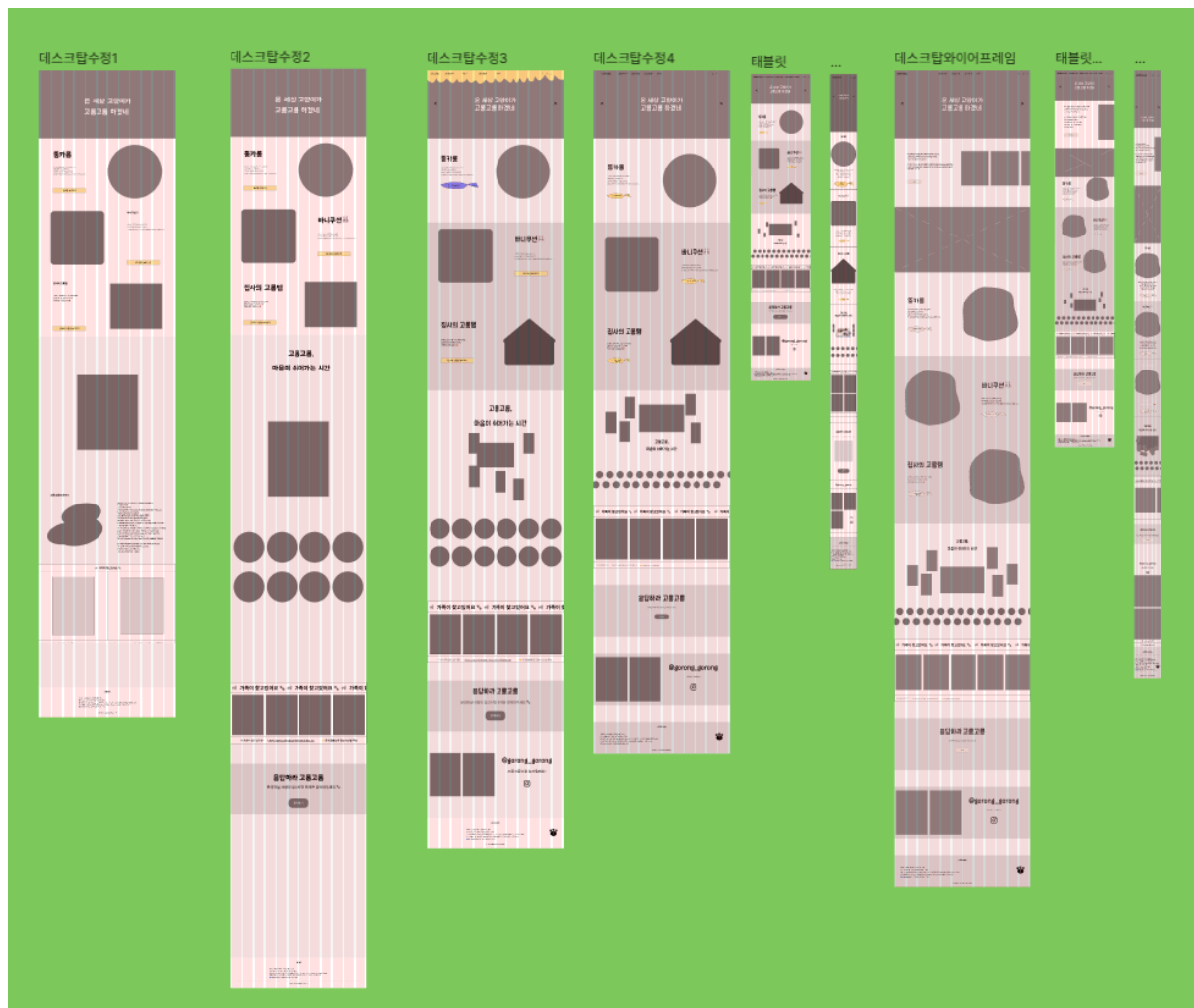
☁ 느낀 점

- 처음엔 귀엽고 감성적인 화면만 구상했지만, 작업을 하며 사용자의 클릭 흐름과 정보 배치의 중요성을 더 깊이 고려하게 되었다.
→ 덕분에 디자인 수정이 반복되긴 했지만, 더 나은 UX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음을 느꼈다.
- 피그마 작업 과정에서 컴포넌트화나 베리언츠 설정을 미리 하지 않아 중복작업이 생겨 효율이 떨어졌다는 점이 아쉬웠다.
→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초기 설계 구조를 탄탄히 구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깨달았다.
- 사이드바와 스크롤 구조를 구현하는 데 스크립트와 CSS가 꼬이면서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 개발자와의 협업을 염두에 둔 구조 설계의 필요성을 느꼈다.
-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고롱고롱 브랜드의 가치인 "편안한 쉼, 따뜻한 감성"을 시각적으로 풀어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느꼈다.
→ 오히려 그런 추상적인 감성을 어떻게 사용자의 행동 흐름과 UI에 녹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
- 결과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디자인이나 코딩 구현을 넘어서, 지식, 실전 경험, 좌절감, 성취감까지 모두 담긴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

→ 디자인은 결국 **사용자와 브랜드를 연결하는 감성적 다리이자, 정보 구조의 안내자**임을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었다.

아이디어 스케치

와이어프레임/디자인시안





컴포넌트&베리언츠

피그마

▼ url

<https://www.figma.com/design/Mmf0t2A61Xc7DgaLNesH0I/%ED%95%9C%EA%B5%AD%EC%9D%8C%EC%95%85%EC%A0%80%EC%9E%91%EA%B6%8C%ED%98%91%ED%9A%8C%EC%9B%B9%EC%82%AC%EC%9D%B4%ED%8A%B8%EB%A6%AC%EB%94%94%EC%9E%90%EC%9D%B8?node-id=0-1&p=f&t=Jdoc6QXoZfWHjvTH-0>



프로그램 : 피그마

패널과 툴 : 도형, 텍스트, 레이어 스타일(그림자, 아이콘 색상, 테두리), 프로토타입, 오토레이아웃, 펜툴, 선택툴

폰트 글꼴 : 'MemomentKkukkukk'(한), 'Pretendard'(한,영)

폰트사용이유

1. MemomentKkukkukk (메모멘트 꺾꺾체 — 스타일/강조용)

- **고양이 감성 전달:**

손글씨 느낌의 자유로운 획과 귀여운 디테일이 고양이 브랜드의 **따뜻하고 아기자기한 감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준다.

- **시각적 포인트 요소로 활용:**

본문과 명확히 구분되는 스타일로, **제품명, 타이틀, 감성 문구** 등에 **시각적 리듬감**을 주기 위해 사용함.

-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조화:**

'고롱고롱'이라는 이름과 어울리는 **귀여움, 부드러움, 유쾌함**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필체.

- **무료 상업용 사용 가능:**

공식 배포 라이선스를 통해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음.

2. Pretendard (한글+영문 본문용)

- **다국어 가독성 우수:**

한글과 영문의 **조화로운 설계**로, 혼용 문장에서도 이질감이 적고 **깔끔한 읽기 흐름**을 제공한다.

- **모던 & 정돈된 분위기:**

절제된 곡선과 구조로 인해 브랜드의 **미니멀하고 감각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

- **웹 환경 최적화:**

다양한 굵기(weight), 화면 해상도, 브라우저에서 **우수한 호환성과 안정성**을 보장함.

- **오픈 소스 라이선스:**

누구나 자유롭게 상업적 이용 가능하며, 확장성과 재사용성이 높음.



의도와 다른 부분/문제점

- **감성적이고 트렌디한 디자인을 구현하고자 했으나**, 시각적 요소에 집중한 나머지,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음. **(의도와 다른 부분)**

⇒ 디자인은 감성적으로 완성되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핵심 정보에 빠르게 접근하기 어려워 **정보 전달력이 떨어지고 UX가 저하**되었음. **(문제점)**

이후, 시각적 감성뿐만 아니라 **사용자 흐름을 고려한 콘텐츠 배치, 정보 우선순위에 따른 레이아웃 구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스크롤 1~2회 내 도달 가능한 정보 구조 설계**를 우선순위로 삼을 계획임. **(문제해결)**

- 다양한 스크롤 인터랙션을 구현하고자 했으나, JavaScript 기반 스크립트 적용 시 **잦은 오류와 비정상 작동 현상**이 발생함.(의도와 다른 부분)

⇒ 커스텀 스크롤 효과 구현 과정에서 **플러그인 충돌, 디버깅 시간 과다, 코드 간섭**등이 발생하여 **작업 효율이 크게 저하됨**.(문제점)

이후, 스크롤 인터랙션은 **바닐라 JS** 또는 **GSAP, Framer Motion** 같은 검증된 라이브러리로 대체하고, **기능 정의서를 기반으로 설계 후 단계별 테스트 적용**

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임.(문제해결)

- Figma에서 **컴포넌트/베리언츠 설정 없이 작업을 시작**하여, 동일한 UI 요소를 반복적으로 생성하는 비효율적인 작업 방식이 반복됨.(의도와 다른 부분)

⇒ 디자인 시스템 없이 각 요소를 수동으로 제작하다 보니, **일관성 부족**과 함께 **수정 시 전체 적용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발생함.(문제점)

이후에는 작업 초기 단계에서 **디자인 시스템 → 컴포넌트화 → 베리언츠 설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모든 UI 요소를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작업 효율과 품질을 동시에 향상시킬 계획임.(문제해결)

잘 한 부분/칭찬할 점

- 사용자 조사와 시장 조사를 사전에 진행하여 디자인 시안 수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작업 효율성을 높임.
- 이미지와 아이콘의 해상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시각적 품질을 향상시킴.
- 메뉴 구조를 재정비하고 재구성하여 사용자가 더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리디자인함.
- 핵심 컬러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명확히 드러나는 홈페이지를 제작함.
- 기존 사이트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각적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함.

어려웠던 점

- 애니메이션에 구현될 스크립트를 잘 활용할 줄 몰라 시간이 많이 소비되었음
- 기존사이트의 분위기를 유지하되 색다르게 이미지를 바꾸는데에 어려움을 겪었음
- 프로토타입 설정, 개발자 도구 활용 등 툴 전반에 대한 숙련도가 부족해 작업 효율이 떨어지고 반복 수정으로 인해 시간이 오래 소요됨.
- 반응형웹사이트를 제작하면서 미디어쿼리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줄여나가야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 어려웠음.
- 브랜드의 기존 이미지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스타일로 풀어내는 과정이 쉽지 않아, 표현 방식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었음.
- GSAP스�크롤 트리거를 구현하는데에 정확한 구현동작의 논리를 이해하지못해 어려웠음
- 로딩페이지를 구현하였으나 기본적인 학습만 진행한 상태에서 구현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GPT를 통해 도움을 받아 구현을 하면서 또다른 효과가 있는것을 학습하게 되었으며, 이해가 가능하고 수

정이 가능한 한계에서 한층 더 발전된 페이지로 구현할 수 있었음.

다음에 시도/보완할 부분

- 여러 효과를 포함시킨 프로토타입을 구현해 볼것
- 비주얼 스튜디오 이용시 gsap트리거와 제이쿼리를 활용한 풍성한 인터랙션효과를 제작해볼것
- 기존보다 색다른스타일의 디자인을 진행해 볼것
- 사용자경험을 우선으로 두는 정보설계를 목적으로 돌것
- 툴을 다루는 스킬과 지식
- 코딩 이해도 향상시키기